

Magazine

새벽종



함께, 꿈꿔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과 함께
우리의 내일을 꿈꾸다

매거진 <새벽종> e-Book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 서재



예스24

2024 11+12 제17호

새마을 중인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현장을 가다

반가운 올림
손복수
시각디자이너

새마을 스테류
광주 남구새마을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17
ISSN 2799-9343

회

제로!

- ▶ youtube.com/@saemaul
- © instagram.com/letssaemaul
- f facebook.com/letssaemaul
- blog.naver.com/letssaemaul
- pf.kakao.com/_zNxknT

함께, 꿈꿔봄

정이 넘치던 마을,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기적,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CONTENTS

2024 11+12
제17호



발행일
2024년 11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김광림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THEME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새마을운동

06 새마을 zoom
새마을운동,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현장을 가다

10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과 함께한 2024년의 기억
월별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14 반가운 올림
어제의 기록에서 내일의 가치를 찾는
새마을운동 자료수집가
손복수 시각디자이너



18 함께 공감
새해 떠오르는 첫해처럼 희망 가득한 새마을운동
최라라 시인

20 새마을 타임즈
공장새마을운동의 불씨를 지핀 남자

22 새마을 인터뷰 ①
다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요
광주 남구새마을회



26 새마을 인터뷰 ②
한 명의 이웃을 위한 온 마을의 행복한 동행
서울시협의회

30 청년, 미래 그리고 새마을
세대를 이어 발전하는 '오늘의 운동'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34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1년 차 국가 파푸아뉴기니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3년 차 국가 키르기스스탄

38 희망 에세이
연말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인사
새마을가족, 마음을 전하다



40 실패 여행
겨울 눈꽃이 수놓은 동화 속 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올바른 분리배출로 완성되는 탄소중립 퍼즐
버려질 물건에서 숨겨진 가치 찾기

46 새마을 포커스

58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현장을 가다

2024년 11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라는 주제 아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새마을지도자들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되새기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짐을 함께했다.

글. 편집실 사진. 전경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회장단 그리고 시도시군구회장단, 새마을지도자, 청년 및 대학동아리회원 등 총 10,0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 열기를 더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위상과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정부 포상을 받는 곽명순 충청북도새마을부녀회장

'2024 보람의 현장' 영상은 단순히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영상 속 주인공들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제'였고, 또 '내일을 여는 오늘'이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를 '잘살아 보자'는 의지로 충만하게 했으며,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했다"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전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우리의 빛나는 역사가 되고, 그 역사를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숨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위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새마을가족





원로지도자와 인사를 나누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대구시새마을회 회장단이 입장하는 모습

이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마을운동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바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아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대회 주제를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로 정했다”라며 2025 새마을운동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새마을운동 실천 등에 앞장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인 새마을훈장 자조장은 광명순 충청북도새마을부녀회장에게 수여됐다. 광명순 회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재활용품수집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매년 2,000여 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자원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순 회장을 비롯해 16명의 새마을지도자가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돌봄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 탄소중립 실천, 자연생태보호 및 관리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그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에 매진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은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대회사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정신은 농촌 개량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불과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방산과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며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맘을 흘리고,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합심해서 노력할 때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새마을운동 비전선포 퍼포먼스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그리고 중앙회원단체장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외치며 새마을정신의 확산을 염원했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마을노래를 따라 부르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힘찬 노랫소리 속에 새마을정신이 가득 넘쳐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감동적인 축제였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



청년새마을연합회원들의 기념촬영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외치는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운동과 함께한



2024년의 기억

월별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따스한 봄별 아래 싹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가을걷이를 맞이하듯,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새마을지도자들은 땀과 정성을 쏟아 부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중 월별로 특별한 의미를 남긴 새마을지도자들의 주요 활동과 중앙회의 주요 뉴스를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온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1월

- 1. 2. 2024 전국 새마을(지)회 시무식
- 1. 17. 제2기 대학새마을동아리 동계 해외봉사단 (피지, 라오스, 동티모르)
- 1. 24. 콩고 청소년부 산하 대표단 역사관 방문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전국 새마을(지)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마을운동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새해맞이 이웃돕기 성금 기부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며 새마을지도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월

- 3. 19. 보츠와나 대통령 비서실장 내방
- 3. 25. 제2557기 새마을지도자 초급과정 1차 교육
- 3. 27. '새벽종' 제작·설치 및 타종식
- 3. 28. 우간다·케냐 국회부의장 내방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3월, 겨우내 잠들었던 자연이 생기를 되찾듯 새마을지도자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싹이 피어났다. 새봄을 맞이하여 펼쳐진 '새봄 맞이 대청소'는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월

- 2. 1.~29. 설 명절 맞이 이웃돕기, 따뜻한 동행
- 2. 2.~21. 중앙회 단체별 정기총회
- 2. 29.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설 명절이 있는 2월, 새마을지도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국과 다양한 명절 음식을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정을 나누었다.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고향 마을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지도자의 손길이 닿은 곳곳은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고향을 찾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4월

- 4. 1.~30. 나무 심기·환경정화, 깨끗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 4. 19.~23. 2024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
- 4. 22.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4월, 푸른 봄바람이 온 세상을 감싸는 계절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선사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새마을지도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식목일을 맞아 푸른 꿈을 심는 나무 심기 사업에 참여했고,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맞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5월

- 5. 1. ~31. 어르신 공경, 사랑 나눔
- 5. 18.~19.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청년캠프 및 정기총회
- 5. 30. 에티오피아(KPM) 방문단 역사관 1일교육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5월,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새마을지도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어린이날에는 지역 내 한 부모 가정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버이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7월

- 7. 3. 2024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
- 7. 18. 제27대 김광림 중앙회장 선출
- 7. 25. 중앙회 페이스북, 소셜아이워드 비영리단체 분야 '대상'
- 7. 26. 2024 피자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휩쓸었던 7월,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를 대비하여 지역 내 배수로를 정비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방문하여 지붕과 창문을 수리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

6월

- 6. 27.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한국소아암재단에 헌혈증서 기증
- 6. 28. 국가기록원장, 새마을운동중앙회 내방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새마을지도자들은 지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걷기 운동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줍깅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깨끗한 환경도 만들었다. 푸른 하늘 아래, 새마을지도자들은 손에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고, 땀방울을 흘리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8월

- 8. 1.~31. 피서지문고, 태극기달기운동
- 8. 21. KOPIA 필리핀센터 새마을역사관 방문
- 8. 26. 베트남 공무원 새마을역사관 방문



뜨거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 시원한 바닷가나 산으로 향했다. 피서지 곳곳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독자들을 기다렸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거나,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름 휴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다.

9월

- 9. 3.~6. SGL, 전문가 초청 새마을교육
- 9. 4.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글로벌협력국 국장회의



민족 대명절 추석, 새마을지도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온 마을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쌀과 과일, 떡 등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나눔 활동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11월

- 11. 5.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11. 1.~30. 연말연시 이웃돕기, 소외계층 지원 사업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11월, 새마을지도자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매년 이맘때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추운 겨울을 녹이는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10월

- 10. 17. 김성호 신임 사무총장 임명
- 10. 25. 짐바브웨 인적자원개발부 장관 내방
- 10. 30. 경일대와 업무협약 체결
- 10. 1.~31. 추석 명절 맞이 이웃돕기, 농촌 일손 돕기



황금빛 들녘이 펼쳐지는 10월, 수확의 기쁨과 함께 풍성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가 사과, 배, 감, 고구마 등 농작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각 지역에서 다채롭게 열리는 축제 현장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 진행을 돕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12월

- (예정) 2024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 (예정)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 (예정) 2024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12월에는 일 년 동안 진행된 다양한 새마을운동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그 성과를 꼼꼼히 평가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은 새해에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에는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

어제의 기록에서 내일의 가치를 찾는 새마을운동 자료수집가

손복수 시각디자이너



〈국토보존〉 1970년 대통령비서실 발행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 자료수집가 손복수 작가다. 그의 손에 의해 잊혀졌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는 자료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우리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가치임을 증명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원복 사진. 손호남

새마을운동기록물에서 가치를 발견하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록은 미래 세대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록을 보고 후대들은 과거를 이해하고,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한다. 역사적 문서나 개인적인 기록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손복수 작가가 '새마을운동 자료수집가'라 불리며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찾아내고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교훈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한 시대적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과 자립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손복수 작가는 백화점 판촉디자인부터 시작해 현재는 미래광고 기획 대표로 일하고 있는 시각디자이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여러 대학에서 7년간 겸임교수와 강사로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대구디자인협회 부회장 역임 외 여러 디자인 및 미술 단체에서 몸담으며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미술계에서는 내로라하는 디자인계의 숨은 주역이다. 이런 그가 '새마을



차창 너머로 청도 신도리 주민들의 제방 복구 현장을 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박통열차〉

운동 자료수집가, '새마을운동 디자이너' 등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마을운동 경력이라고 해도 4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 '희망새마을청소년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새마을운동의 현장에도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2007년은 손복수 작가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해, 그는 새마을운동 자료 수집에 몰두하며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세웠다.



“제 고향인 청도군과 다른 지자체가 서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며 법적 분쟁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등의 정부 공식 문헌과 행정관료, 새마을지도자의 회고록 등을 통해 청도군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이 법적으로 공식화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은 많지만 정작 문서화되고 기록된 것이 없었어요.”

2007년 이후, 손복수 작가는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새마을운동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다. 밤낮없이 자료를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2만 여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재능으로 새마을운동기록물의 가치를 높이다

손복수 작가는 사진 한 장, 출판물 한 권, 그리고 일상용품 하나 하나까지 소중히 모아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촘촘하게 채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굴된 김보현 장관(제22대 체신부장관)의 방문 사진은 청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손복수 작가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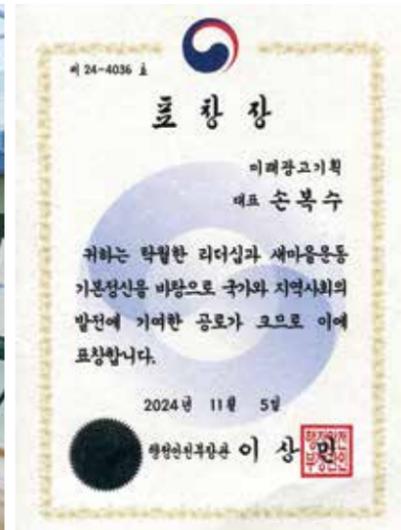
손복수 작가가 수집한 새마을운동기록물

지역에 방문해 당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께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다른 방법은 헌책방이나 온라인 중고시장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2021년 4월 <새마을운동 새싹을 틔우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누군가에게는 그냥 오래된 책이겠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 중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고, 그것을 단서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내죠.”

이렇게 모은 자료는 손복수 작가가 청도군청과 함께 여러 권의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집을 출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가 자료 수집과 집필, 편집디자인으로 참여한 출판물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새마을운동 42년 발자취>(2012년),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 새마을운동 화보집>(2013년) 등 네 권이다.

더 나아가 손복수 작가는 36년간 시각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쌓아온 재능으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문화예술 작품으로도 표현했다. 새마을운동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손 작가는 9회의 개인전과 5회의 기획전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예술과 사회의 소통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작품에는 새마을운동과 고향 청도군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다. 여러 작품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박통열차>와 <신거역>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신도마을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창안했다는 문자 기록은 있지만,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사진이 없었다.

손복수 작가는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특히, 2020년 청도군에 기증한 엠블럼은 그의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수집한 기록물과 작품을 공공기관, 박물관, 청도군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자신만의 새마을운동으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다

손복수 작가는 17년간 묵묵히 이어온 새마을운동기록 수집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5일에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다.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 활동의 공적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새마을운동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록물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새마을운동



1969년 8월 3일, 청도 신도리 주민들과 대화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신거역>

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록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를 소중히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죠.”

손복수 작가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새마을운동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록물을 모아놨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응원의 말도 전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역량대로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전제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새마을운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새마을운동도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다. 손복수 작가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그 다리를 만들고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어제에서 새로운 내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그의 열정과 노력이 보여주듯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 손복수 작가가 앞으로 자신만의 새마을운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해 보자. ☺

새해 떠오르는 첫해처럼 희망 가득한 새마을운동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과거의 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희망을 그려본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과거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과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새마을운동은 그 시절의 따스함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며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 왔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설렘을 품게 한다.

글. 최라라(시인)

● 자극에 둔감해진 시대, '새로움'을 다시 생각하다

언제부터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는 일이 재미없어졌다. 뉴스를 보는 즐거움은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사람들의 삶이 가감 없이 날것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되곤 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며 분노를 느끼거나 눈물을 글썽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는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해졌다. 뉴스는 범 죄나 다툼을 전하는 코너로 전락했고 새로운 소식보다는 쟁점이 되는 사건에 날마다 꼬리 하나를 더 달거나 부풀려 놀이기가 일쑤다. 미담보다는 자극적인 사회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시청자를 부추겨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왜곡된 보도로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혼선을 주기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새롭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설렘까지도 생겨난다. 그래



폐농약병 수거로 흘린 땀방울을 행복으로 바꾸는 전남 해남군새마을회



버스정류장 청소 등 내 지역 가꾸기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서일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열광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새로움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거의 날마다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고 새롭다는 말은 그들만의 무대가 되었다. 어쩌다 새롭다는 말만으로도 가슴 설레던 때는 사라지고 물질만능 세상이 되었을까.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찾고 연구하기보다 인공지능을 통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나날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다. 그래서 마스크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걸까. 둔감해진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방법이 그것이였을까.

● 과거의 지혜, 현재의 대안: 새마을운동의 재발견

다행인 것은 새로움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각성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레트로라는 말의 등장인데 레트로(retro)는 추억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을 뜻한다. 패션이나 음악, 음식, 미디어 콘텐츠까지 최근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다. IT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여러모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마음 속속들이 행복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물질만능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들이 레트로를 선택한 것이다. 레트로는 단순히 과거를 추앙하고 따라 하려는 경향이 아니다. 나름의 재해석을 통하여 재탄생시키려는 열정이다.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진행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청도를 경유한 적이 있었다. 청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도시이다. 굳이 그곳에 버스를 세우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기도 했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념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이 버스나 승용차로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랐다. 잘 정돈된 길에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에게야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함께했던 기억, 즐거웠던 새마을의 아침

나에게 새마을운동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노랫소리와 함께한다. 일요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동네 큰 스피커에서 그 노래가 울려 나왔고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을 회관 앞으로 갔다. 일요일 아침에 만난 우리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것과는 달리 정말 가족처럼 부둥켜안거나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의 덜 깬 잠을 깨웠다. 그리고는 애항반장이 나누어 주는 대로 삼삼오오 나누어 동네 골목을 쓸었다. 생각해 보니 지금처럼 비닐봉지가 흔하게 날아다닐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열심히 흠질을 쓸었는지 모르겠다. 각자의 집 앞이 아니어도 상관 없었고 할당량이 많거나 적어도 상관없었다. 어쩌다 운 좋은 날에는 지나가던 어르신께 용돈을 받기도 했고 먹을 것을 받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참 불평불만이 없던 때였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왕따나 외톨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다. 청소가 끝나면 마을 이장님이 챙겨주는 간식을 먹기도 했고 누군가가 가지고 온 과자를 나누어 먹기도 했다. 아무것도 나눌 게 없는 날도 많았지만, 마냥 즐거운 때였다. 새마을운동은 그렇게 즐겁고 희망찬 운동이라는 의미로 내게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내일의 희망과 미래를 품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레트로에 대한 열망과 다름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간을 경험했던 하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역사를 알고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열정의 시간을 공유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것은 이미 지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현재의 무수한 불협화음들이 마을 길을 쓸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순식간에 잠재워질 것만 같다. 험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들이 순식간에 푸르른 산과 강으로 정화될 것만 같다. 새마을운동이 아직도 우리 삶과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언젠가 있었던 한 목소리의 세상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고 싶다는 바람이다. ☺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각종 문서와 편지, 성공사례 원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작됐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4년 '새마을 타임즈'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만화 이야기를 각색해 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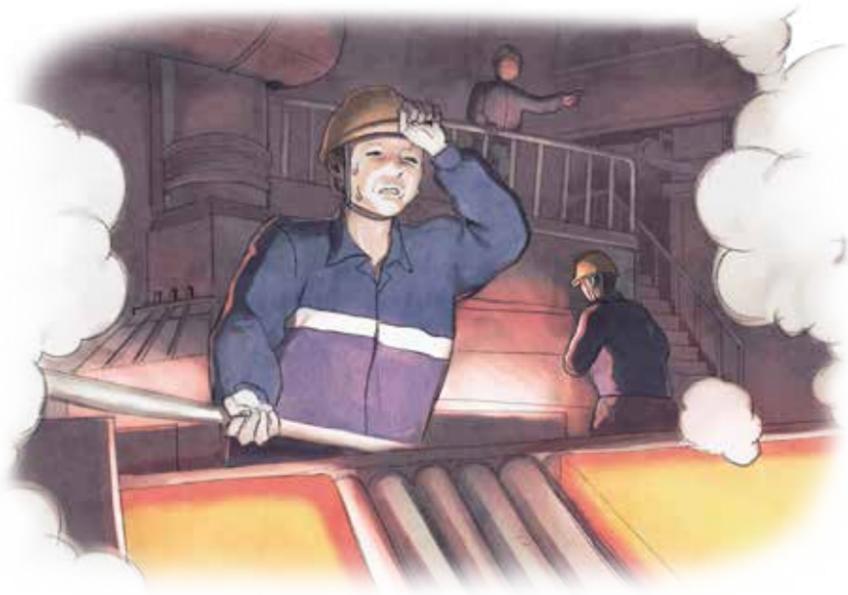
다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ep. 5

공장새마을운동의 불씨를 지핀 남자

인천광역시 동구 손관형 지도자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던 1970년대 초반.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해도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다.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충동적인 소비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지 못하고,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사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안타깝게 본 손관형 지도자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장새마을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이끈 손관형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러스트 정재은



돈이 없어 금쪽같은 자식을 잃다

1935년 황해도 웅진군의 가난한 집 맏아들로 태어난 손관형 지도자. 6·25전쟁으로 중학생 때 가족과 생이별하며 고아가 됐지만, 곳곳하게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해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어려운 살림에도 아내와 갓 돌 지난 아기를 위해 온갖 일을 하며 희망을 찾아가던 중 뜻밖의 불행이 찾아오고 만다. 금쪽같은 자식이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조차 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웠다. 그는 '좀 더 열심히 살았다더라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저축이라도 했다면'이라고 생각하며 절규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손관형 지도자는 아픔을 딛고 1960년 인천의 한 제철공장에 취업해 월급 3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저축했다. 철이 녹는 3,000℃의 불 앞에서 일하면서도 늘 저축이 먼저였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차근차근 이뤘다.



직장금고에서 공장새마을운동으로

성실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손관형 지도자와 달리, 동료들은 월급을 흥청망청 써버리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듯했다. 그는 당장 적은 돈이라도 모으고, 서로 돕자며 동료들을 설득한다. 그렇게 30여 명을 모아 3만 원을 출자해 1969년 직장금고인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며 거절하는 동료들이 부지기수였지만 포기를 모르는 손관형 지도자로 인해 직장금고는 5년 만에 조합원 수 600명, 저축 실적 1,700만 원 규모로 성장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다. 바로 사내에서 개인 돈이 융통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던 사측 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일이었다. 다행히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공장으로도 확산되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이 기업 곳곳에 퍼져 직장금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직원들은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고철 수거를 통한 부가적인 소득을 얻었다. 또 함께 힘을 모아 공장 안 비포장도로를 말끔히 포장해 공사비 100만 원을 절감하자 사장의 격려와 함께 포상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회사 전체에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새마을운동이 일터와 가정에 행복을

새마을운동은 제철공장의 모든 구성원을 단결로 이끌었다. 공장 내 직장금고 사무실도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고, 저축 의욕이 높아져 직원마다 통장을 만들었다. 2,000여 명 직원이 1인당 평균 6만 원씩, 약 1억 2,000여만 원을 저축했다.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니 이 익배당금이 20%나 됐다. 이제는 가족이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장금고의 성과는 그렇게 공장새마을운동으로 이어졌다. 조합원들이 나서서 실천한 물자 절약 운동으로 20억 원이라는 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도 이뤘다. 공장새마을운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곧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나라와 개인이 잘살기 위한 운동이며, **바(보)기(기)운(운)도(도)입니다.**
내가 잘살고 이웃이 잘살고 나라가 잘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합시다!”



초성 퀴즈

손관형 지도자의 말 중 초성만 들어간 단어가 무엇인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기〉-----

- ① 범국민 운동
- ② 보급망 이동
- ③ 비구매 운동



퀴즈 참여하기
(QR코드 스캔)

다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요

광주 남구새마을회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면 무척이나 거창해 보이지만, ‘물 아껴 쓰기’라고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처럼 광주 남구새마을회는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친환경생활 실천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업과 웃음이 빛났던 제2회 남구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현장을 만나보자.

글. 최해진 사진. 주성완

물을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아타이거즈가 7년 만에 2024 KBO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며 광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광주에서 가장 큰 지역 축제인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동구 금난로에서 펼쳐졌으며, 북구에서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렸다. 즐거운 분위기는 남구까지 이어졌다. 10월 5일 진월동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제2회 남구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도 열렸다.

‘남구야 지구를 부탁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축제는 주민에게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에너지전환 3단계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탄소 ZERO 배움터’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ZERO 놀이터’로 나눠 운영됐다. 광주 남구새마을회는 그중 탄소 ZERO



지난 10월 5일 광주 진월동에서 열린 제2회 남구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에 참가한 광주 남구새마을회 회원들

배움터에서 친환경 EM(유용미생물군) 설거지비누 만들기 체험과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나눔 장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EM(유용미생물군) 설거지비누 만들기 체험 부스는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아이들로 문전성시였다. 지도자들은 EM(유용미생물군) 설거지비누가 무엇인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 뒤에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다. 체험 문이 빗발치자 조정숙 부녀회장의 얼굴도 환해졌다. “2022년에 광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오랫동안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온 시민과 함께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지구의 물은 사람으로 말하면 피와 같아요. 사람에게 피가 생명줄과 같다면, 지구에게는 물이 생명줄입니다. 항상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을 아껴 쓰는 것 못지않게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방에서부터 탄소중립 활동을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EM(유용미생물군) 설거지비누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어요.”

5R 운동, 우리 함께 실천해요

2022년 광주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6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주요 저수지가 모두 바닥을 드러내 사실상 일 년 내내 가뭄에 시달린 셈이었다. 기후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한 광주 남구새마을회



축제를 찾은 한 주민에게 알루미늄 캔의 올바른 분리수거에 대해 설명하는 조정숙 부녀회장.

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남구에 적을 둔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22년 ‘광주 남구기후위기비상행동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연장선으로 남구새마을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을 조직했다.

이날 축제에도 EM(유용미생물군) 설거지비누 만들기 체험 부스 앞에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판판한 종이 보드에 실천 강령을 적어 홍보하고, 우유갑, 병뚜껑, 플라스틱 물 병 등 수집한 것을 전시했다. 그 앞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몇 번이나 멈추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온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환경 보호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다.

그런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던 정남석 새마을회장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마을, 즉 마을공동체는 기후위기 앞에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절박하고 중요한 새마을운동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5R 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5R 운동은 Refuse(거절하다), Reduce(줄이다), Reuse(재사용하다), Recycle(재활용하다), Rot(자연분해 물건 사용하기)의 영문 앞글자를 모아 명명한 것으로,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광주 남구새마을회는 5R 운동의 일환으로 식당에서 버려지는 병뚜껑을 모아 재활용하는 ‘문지마 병뚜껑’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병뚜껑을 모으기 위한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 설치하고, 모은 병뚜껑은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실버 카를 구매해 전달하고 있다. 이경현 협의회장은 “광주 남구새마을회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 부듯하다. 오늘 축제를 계기로 5R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새마을운동 이어 가요

광주 남구는 자영업·소매업 중심의 고령화된 구도심과 농촌, 아파트 단지 중심의 거주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이다. 이런 지



광주 남구새마을지도자들이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 피켓 홍보를 하는 모습



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연중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새해맞이 떡국나눔’ 사업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1회씩 동네를 살피고 청소하는 ‘쓰담쓰담 동네한바퀴’ 사업은 일상화되었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5060 인생 이모작지원사업’이 있다. 제1기 도시농부학교를 개강하여 텃밭 관리, 모종 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녀회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각동 부녀회원들과 함께 ‘지구 위한 하루한끼 채식밥상 건강나눔’ 사업을 3년째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역 농가 50곳에서 채소를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채식 밥상을 권장하기 위한 채소 나눔 사업이다. 고기와 유제품을 소비할수록 가축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올해 예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사랑의 김장나눔’이 있다. 이경현 협의회장은 “매년 4천 포기 정도 김장을 담가 다문화 가정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남석 회장은 “그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찾아 새마을운동을 알렸다. 특히 미얀마에서 마을 공동 우물을 건설하자 주민들이 환하게 웃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때 도로 포장 요청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꼭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해야 한다는 사명, 하면 된다는 신념,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달라진 현장을 이해하고 지도자들 요구 또한 지혜롭게 소통으로 풀어가겠다”라며 앞으로의 활동 의지를 다졌다.

광주 남구새마을회는 ‘나부터 꾸준히, 함께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생활 속 실천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우리의 지구를 살리는 긍정적 나비 효과가 되길 희망한다. ☺

한 명의 이웃을 위한 온 마을의 행복한 동행 서울시협의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협동과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아닌 '우리'에 중심을 두고, 다정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25개 자치구가 모여 이룬 또 하나의 마을, 서울시협의회다.

글. 김지현 사진. 김동환



연탄 배달을 위해 모인 서울시협의회와 강북구 새마을지도자들

한 사람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

지난 11월 1일, 여름을 떠나보낸 지 한참이건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어느 마을은 한여름을 꼭 빼어 닮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그곳에는 윤종희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 각 구 협의회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100여 명의 강북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한 곳에 자리한 이유, 바로 '약자와의 행복한 동행: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겨울'이라는 메시지 아래 강북구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세 가정에 가정용 구급약 키트 1개와 연탄 200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협의회 주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나눔은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약 6,500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구 협의회장을 필두로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연탄을 나르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 협의회장들



가파른 계단을 따라 보관 창고까지 전달된 연탄

실천하고 있는 것. 이번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협의회는 각 구의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

“연탄 나눔은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서울시협의회 고유의 사업입니다. 단순히 계절 특성만 살린 활동이 아닌, 25개 구 지역 주

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윤종희 협의회장의 말대로, 이날 가정용 구급 키트와 연탄을 지원받은 수유동 주민은 “연탄이 올라오기도 힘든 동네인데,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며 진심이 담긴 인사를 전했다.

연탄 나눔, 사랑 나눔

서울 우이신설선 삼양역에서 내려서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곳, 이번 연탄 나눔이 절실했던 수유동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시작 시각이 가까워지니 한적했던 마을이 서울시 각 구 협의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의 웃음소리로 북적였다. 윤종희 협의회장의 인사말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푹푹 뭉쳐 이른 오전부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마을정신’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강북구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갑과 토시와 더불어, 선한 웃음까지 오늘의 준비물이었다는 듯 새마을지도자들의 에너지는 강북구에 걸쳐진 북한산의 정기만큼이나 넘쳤다. 현장까지 이미 한 차례 높은 언덕들을 넘어왔지만, 연탄을 저장할 창고까지, 또 한 번의 경사진 계단 앞에서도 힘들기는커녕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 윤종희 협의회장, 안병학 강북구협의회장과 함께 각 구 협의장이 선두 그룹으로 나섰다. 그 뒤를 이어 계단 끝 연탄이 가득 실린 차량까지 강북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줄을 이어 섰다. 연탄 한 장도 떨어뜨리지 않고 각 가정에 200장이 모두 온전한 상태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연탄을 잡은 두 손에는 힘을 잔뜩 쥐면서도 받고, 전달할 다음 사람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기에 바빴다. 트럭 가득 실려 온 연탄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정의 창고를 가득 채운 후 세 번째 가정만 남았을 때, 한 자리에서 계속되는 반복 작업에 지칠 법도 하지만, “좋아!”, “쭉~ 쭉~ 올라갑시다!” 하는 누군가의 구호에 더 힘을 내는 새마을지도자들.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응원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모든 연탄이 각 가정에 무사히 전달됐다.

따뜻한 손길, 따뜻한 공동체

강북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 특히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나는 가정이 많은데, 이날 강북구협의회와 서울시협의회가 연탄을 배달한 이 마을은 특히나 언덕과 경사진 계단이 많아 연탄 배달이 쉽지 않다. 이에 지역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연탄 배달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했다. 연탄 나눔을 추진해 온 것도 올해로 16년째.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연탄이 필요한 가정이 많지만, 서울 지역 내에 연탄 공장이 없어지면서 연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협의회는 공급처와 꾸준히 협의해 온 덕분에 안정적으로 연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서울시 전체에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윤종희 협의회장은 새마을정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한다고 전했다.



연탄을 나르고 있는 강북구 새마을지도자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화합하는 과정은 우리 협의회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 전역에 새마을운동을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각 구가 지닌 특성과 강점을 살리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도록 사회적 관심을 두고,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윤종희 협의회장의 말처럼 강북구에서의 연탄 나눔을 통한 새마을운동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따뜻한 공동체를 향한 도약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보자. ↴



이웃에게 연탄을 나누는 강북구 남너지도자(왼쪽)와 가정용 구급키트를 전달하는 안병학 강북구협의회장(오른쪽)



세대를 이어 발전하는 '오늘의 운동'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새마을정신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심인 이들이 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도움을 받는 '따뜻한 관계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내 여러 대학교가 뭉쳐 출범한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도 그중 하나.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이들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한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글. 김지현 사진. 전경민



영상으로 만나는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이야기



김장 재료를 준비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



청년들의 에너지가 한 곳에 모아질 때

무더위와 습함이 한차례 지나가고 바깥에서 활동하기에 딱 알맞았던 지난 9월 28일, 대구광역시의 MZ세대가 뭉쳤다.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소속인 계명대학교 동아리 '올바르미'와 영남이공대학교 동아리 '새봄'의 동아리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대구시협의회는 대구시 소재 3개 대학교(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대구 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계명대학교 동아리 '올바르미'와 영남이공대학교 동아리 '새봄'은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 도심에서 벗어나 달성군에서 영농 봉사활동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합동아리 활동 주제는 '영농 봉사'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원민하 영남이공대학교 '새봄'동아리 회장의 말에 김소담 계명대학교 '올바르미'동아리 회장이 거들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동

아리는 학생들의 활동으로만 운영하잖아요. 대학새마을동아리는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활동해요. 활동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새마을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 다른 동아리와는 차별화된 강점이자 장점이지요.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올바르미"동아리에서는 동아리회원 절반 이상이 참여했어요."

김소담 회장의 말대로 이번 영농 봉사활동 역시 40여 명의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동아리회원이 참여해 'MZ세대만의 에너지'를 뽐냈다. 한편,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활동을 반기며 동참한 이들이 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대구시협의회와 달성군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활동이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때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동아리회원들이 가장 먼저 소매를 걷고

나선 곳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의 어느 땅콩밭이다. 땅콩을 수확해야 할 때가 다가와 일손이 필요했던 터. 모두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어느 누구 마다하지 않고 술선수범으로 목장갑을 끼고 땅콩 캐는 일에 몰두했다.

이후 열무김치를 담그기 위해 화원읍 본리리에서 구지면 징리로 이동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 이들이 도착하기 전, 새마을지도자들은 징리새마을회관 마당에 열무김치 담그기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른 시간부터 움직인 탓에 지칠 법도 한데, '함께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더욱 힘이 나는 법. 열무 다듬는 조, 양념 버무리는 조, 포장 작업 하는 조로 나눠 동아리회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날 담근 열무김치는 징리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전달됐다. 동아리회원들의 손맛과 다정한 마음이 듬뿍 담긴 열무김치를 한 통씩 손에 쥔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열무를 다듬는 동아리 회원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동아리회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했다. 평소 마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청년들에게 열무김치를 나눔 받고, 말동무가 생기자 어르신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모습은 마치 친할머니댁을 방문한 손자, 손녀인 것만 같았다. "할머니를 뵈니 오늘 했던 활동들이 더 뜻깊게 다가왔어요. 할머니께서 저희가 담근 열무김치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치를 전달하고 징리새마을회관으로 돌아오는 길, 영남이공대학교 반혜림 학생이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지면부녀회는 이번 김장을 위해 재료 지원에 적극 나섰다. 공동체의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동아리회원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곁들여졌다. 새마을지도자의 나눔을 받은 동아리회원들이 그 나눔을 다시 한번 징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셈이다.



직접 담근 김치를 어르신에게 배달한 동아리 회원들



열무김치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는 동아리 회원들



화원읍 본리리에서의 땅콩 캐기 작업

징리 마을에서의 페비닐 수거 작업

청년들의 마음에 '새마을정신'이 심어질 때

이틀째인 9월 28일에도 동아리회원들의 영농 봉사 활동은 새벽부터 이어졌다. 수확을 마친 밭에 덩그러니 남겨 둔 페비닐을 걷고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구지면부녀회에서는 분기마다 감자, 양파 등 농산물 수확 후 버려지는 페비닐을 수거해 왔다. 그렇게 모은 페비닐만 연간 약 50톤에 달한다.

모아놓은 페비닐을 지자체에 매각하고 그렇게 얻은 수익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교내에서도 플로깅 등 친환경 활동을 추진해 왔던 대학새마을동아리들의 지향점과도 같아 동아리회원들 역시 적극 나섰다. 이처럼 환경, 이웃,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새마을정신 덕 아닐까.

이번 영농 봉사활동 지역을 타 시도 농촌지역이 아닌 달성군 화원읍과 구지면으로 선택한 데에도 깊은 이유가 담겨있었다. "현재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대형 공단이 많이 입주해

있지만, 이번에 방문한 화원읍 본리리나 구지면 징리처럼 농촌 지역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대구에서 영농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달성군에서 많이 합니다."

권기준 직장·공장 대구시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에 이어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 즉 청년들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열심이다.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을 통해 다른 청년들에게도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 전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운동이 어느 한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것이 대학생 청년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동아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참다운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권기준 직장·공장 대구시협의회장의 말처럼 이번 영농 봉사활동은 대학생 청년들의 마음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씨앗을 심은 1박 2일이었다. 🌱

작은 마을에서 지역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1년 차 국가 파푸아뉴기니

새마을운동 1년 차 국가 파푸아뉴기니 '은가이 베나' 주(州)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자비를 들여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참여했다. 은가이 베나 주(州)는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내 여러 마을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먼 페곤 은가이 베나 환경미화 및 역량강화부 위원장에게 은가이 베나 주(州)의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은가이 베나 환경미화 및 역량강화부 위원장 사이먼 페곤



Q. 안녕하세요. 파푸아뉴기니 은가이 베나 주(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가이 베나 주(州)는 여전히 전통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농부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가이 베나 주(州) 지방정부는 지역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책임자이죠.

Q.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어요. 마을 청소와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로는 지난해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청년, 부녀, 노인 그리고 종교인들로 이뤄진 네 개의 마을공동체인데, 추후 이 마을공동체가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새마을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은가이 베나 주(州)에 새마을운동이 도입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은가이 베나 주(州) '부쉬바타'라는 마을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었는데, 당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좋은 지역개발 모델을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새마을운동을 접하게 된 거죠. 마을 베이커리를 만들어 소득증대를 이뤄냈더라고요. 은가이 베나 주(州) 전체가 새마을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직접 자비를 들여서 초청연수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이유는 새마을운동과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서 보니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자기 일에 임하는 태도가 멋집니다. 부지런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다운 면이 돋보였죠. 또 매일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새마을운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으니 자비를 들여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Q. 연수 프로그램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은 곳은 '축산환경관리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유용한 자원으로 바뀐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필요한 기술도 배웠고요.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독성이 강한 퇴비를 아무 처리 없이 밭에 부리는 경우가 많아 종종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퇴비 제조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배운 것을 파푸아뉴기니 농가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Q.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부쉬바타 마을에서 이뤄낸 새마을운동 성과입니다. 단순히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계기였습니다.

Q. 은가이 베나 주(州)의 내년 새마을운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새마을운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마을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업의 모니터링과 기획, 보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파푸아뉴기니의 새마을협력관과 지도자 등 20여 명은 새마을운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새마을정신을 널리 전파할 겁니다. 내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Q.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찾아보길 희망합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3년 차 국가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3년 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점차 주변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4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지도자가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참여했다. 이 중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변화된 마을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는 탐가마을의 알림베코바 베가임 새마을지도자를 만나 탐가마을의 새마을운동을 알아봤다.

글. 이원복 사진. 신성욱

탐가마을 새마을지도자
알림베코바 베가임



Q. 먼저 탐가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림베코바 베가임이라고 합니다. 탐가마을의 주민이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에는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손자들이 크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접하셨나요?

키르기스스탄에는 탐가마을을 포함해 '아를리나예', '약자르', '오록' 네 곳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있어요. 다른 마을이 새마을운동으로 많은 것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와 힘을 얻었죠. 직접 해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보람차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Q. 탐가마을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탐가마을은 일종의 계획 마을입니다. 본래는 작은 시골이었지만,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이주와 토지를 지원하면서 마을이 개발되고 있어요. 새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Q. 새마을운동 초청연수를 위해 먼 곳에서 오셨는데,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모든 강의가 훌륭했어요. 강의를 통해 과거에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잘사는 나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죠. 앞으로 저와 우리 마을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Q. 올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과 자랑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도로, 수도, 전기 등 필수 시설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을

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공원의 필요성을 공감한 주민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서준 덕분에 완공할 수 있었죠.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죠. 주민이 함께 만든 공원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해가 진 이후에도 책을 볼 수 있어요.

Q. 공원을 만들었다니 신기합니다. 공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흠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바닥에 앉아 책을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고, 먼지도 많아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공원을 만들고 벤치를 설치하면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아 주민회의 때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생해 준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탐가마을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2025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마을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모인 작은 모임이 있어요. 한국의 부녀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탐가마을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부녀회를 구성하고 회관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회의장을 마련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운동 공간도 만들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새마을운동에 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탐가마을을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새마을운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

연말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인사

새마을가족, 마음을 전하다

연말연시 새마을가족이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인사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렇게 퍼져가는 온기가 모두의 얼굴에 미소를 띠운다. 이번 연말에는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가 겨울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 간다.



협의회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영웅
허정태 부산시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허정태 회장님은 부산시협의회를 이끌며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From_이경원 대전시협의회장



“이경원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태 부산시협의회장

부녀회

**지역을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김숙자 울산시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숙자 부녀회장님께서서는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따뜻한 멘토가 되어주고, 정성 가득한 김치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From_김용희 광주시부녀회장



“칭찬을 받으니 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 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며 지역 공동체 운동에도 힘쓰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겠습니다.”

김숙자 울산시부녀회장

직장 공장협의회

**지역에 따뜻한 사랑의 불씨를 전하는
손효택 직장·공장 울산 남구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손효택 회장님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실천하는 나눔은 지역 주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학동아리 장학금 지원과 청년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울산 남구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와 같습니다.

From_박영도 직장·공장 경남 통영시협의회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 년 동안 함께해 준 직장·공장 울산 남구협의회 새마을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손효택 직장·공장 울산 남구협의회장

문고

**깊은 생각으로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김화숙 문고 경북 영양군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난 여름 경상북도 영양군지부가 영양군 선바위 일대에서 진행한 피서지문고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이들이 독서와 물놀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어른들도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간식에서는 세심한 배려도 느꼈고요.

From_이호현 문고 경북 이사/총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말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영양군지부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화숙 문고 경북 영양군지부회장

청년새마을

**청년새마을연합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리더
남동현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남동현 회장님의 모범적인 리더십을 칭찬합니다. 항상 밝고 협력적인 모습으로 회원들을 이끌어 주고, 묵묵히 앞장서서 연대 활동도 이끄는 모습은 좋은 리더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회원 간 유대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From_장지용 제주 청년새마을연합회장



“과분한 칭찬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좋아서,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그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2025년에도 즐겁고 재밌게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 싶습니다.”

남동현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마음과 정신 그리고 행동이 멋진
명승아 남서울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명승아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봉사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 시 현지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자신의 전공을 살려 봉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From_안다연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다른 분들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봉사 정신을 확산해 모두가 봉사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승아 남서울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중)으로 이어집니다.

겨울 눈꽃이 수놓은 동화 속 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우아한 자태의 칠갑산과 그 기슭에 자리한 천장호
그리고 알프스마을의 환상적인 얼음 조형물이
어우러진 곳. 청양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도시다.
눈 내리는 겨울이면 순백의 설경이
펼쳐지는 청양으로 떠나보자.

글. 순지수



겨울 산행의 정수로 불리는 '칠갑산'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은 정상 해발고도가 561m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예로부터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아 때 묻지 않은 덕에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알프스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겨울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산을 찾는 이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봄에는 철쭉과 벚꽃, 여름에는 푸른 천연림, 가을에는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이 제법이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며 눈꽃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973년 3월 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칠갑산'이라는 이름에 관한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천지만물을 상징하는 '칠(七)과 육십갑자의 첫 글자인 '갑(甲)'이 합해져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산이 정상에서 일곱 군데로 뿔어가고, 깊은 계곡이 휘감으며 일곱 개의 명당을 만들었다는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산을 오르며 만날 수 있는 주요 명소는 장곡사, 대치터널, 도림사지,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9개의 등산로가 있어 각기 다른 매력을 만끽하기에도 좋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장승공원에서 시작해 장곡사를 거쳐 정상에 이르는 '사찰로'다. 이 코스는 명소와 문화유산, 자연을 모두 아우르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본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등산 초보자라면 정상 100~300m 전 가파른 구간을 제외하면 나름 평탄하고 걷기 좋은 길인 '산장로'를 걷는 것이 좋다. 칠갑산도립공원주차장에서 시작해 천체 관측을 즐길 수 있는 칠갑산천문대를 지나 자비정을 거쳐 정상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초보자에게 제격이다.

📍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겨울 동화 속의 마을로 초대 '알프스마을'

칠갑산 정상 바로 옆에 자리 잡아 천장처럼 높다는 의미를 지닌 청양군 천장리. 이곳에 자리한 '알프스마을'은 매년 겨울이 되면 눈부신 설경을 자랑하는 겨울 왕국으로 변모한다.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떠오르는 절경은 청양이 겨울철 여행 1번지로 꼽는 이유를 대변한다. 특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얼음분수, 눈과 얼음으로 만든 다양한 조각 작품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겨울 풍경을 자아낸다. 알프스마을은 아름다운 경치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여기에 겨울철 대표 액티비티까지 더해지면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한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얼음 썰매와 눈썰매는 물론 강동 열차와 집트랙까지.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재미를 전달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눈부신 설경과 다양한 볼거리,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새하얀 마을에 어둠이 깔린다. 해가 지고 나면 알프스마을의 또 다른 매력을

햇빛에 비쳐 반짝이는 얼음들



알프스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만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두워진 마을과 얼음 조형물을 아름답게 물들여 마치 빛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화려한 볼거리로 눈이 즐거웠다면 다음은 군고구마와 군밤, 붕어빵 같은 겨울철 대표 간식을 즐겨볼 차례. 고소한 향과 함께 따끈하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은 추울수록 관광객에게 더 인기를 끈다.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청양 알프스마을은 누구와 함께 방문해도 소중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 보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천장호길 223-35



감동의 전설이 깃든 호수 '천장호'

고요한 물결의 숨결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천장호는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1979년부터 담수를 시작한 이래 토종 붕어, 잉어, 산천어 등이 서식해 손맛을 즐기는 낚시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명소이기도 하다. 천장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황룡과 호랑이 전설이 있다. 한때 이 지역에 살던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가던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냇물을 건너지 못하게 되자 이곳에서 있던 황룡이 승천을 포기하고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아이가 물을 건너게 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지켜본 호랑이가 감동해 영물이 되어 칠갑산을 수호한다는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천장호에는 청양의 명물인 207m 길이의 출렁다리도 있다. 2009년 개통할 당시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는 국내 최장이라는 타이틀을 넘겨줬지만, 상하좌우로 약 30~40cm 흔들리게 설계되어 아찔함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출렁다리 중간에는 청양의 대표 특산품인 고추와 구기자 모양을 한 16m 높이 조형물이 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사람 옆에 아홉은 이 자리에서 '인증샷'을 남기곤 한다. 조형물을 지나 천장호를 다 건너면 이내 오른쪽으로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둘레길이, 왼쪽으로는 만지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소원바위로 향하는 길이 펼쳐진다. 소원바위는 시집보낸 딸이

칠갑산 중턱에 자리한 천장호



아이를 갖지 못하자 친정어머니가 이곳에서 700일 동안 기도했고, 이 모습에 감탄한 수호신이 딸이 아이를 갖게 해주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잉태바위'로도 불린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전설이 어우러져 많은 이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청양의 숨겨진 보석, 천장호에서 자연과 전통의 조화로운 만남을 느껴보자. 📍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3

여행지에서 만나는 축제

얼음 조각이 반기는 신비로운 겨울왕국 칠갑산얼음분수 축제



오는 2025년 1월 제17회를 맞이하는 명품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청양군 칠갑산 알프스마을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얼음썰매, 눈썰매

와 같은 다채로운 겨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를 끈다. 또한 야간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빛나는 얼음 조각들이 만들어낸 색다른 분위기가 매력을 더한다. 아름다운 칠갑산의 설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기기에 좋은 알프스마을만의 특별한 정취를 한껏 느껴보자.

일시 : 2025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알프스마을

올바른 분리배출로 완성되는 탄소중립 퍼즐

버려질 물건에서 숨겨진 가치 찾기

올바른 분리배출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다. 각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분리배출이 가능한 쓰레기도 제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된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탄소중립이라는 퍼즐을 함께 맞춰가 보자.

글. 순지수



‘분리배출 4대 원칙’으로 지구를 지키자

분리배출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높은 분리수거율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자원순환율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자원이 단순 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부터 제대로 하는 ‘분리배출 4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 번만 이 원칙을 생각하고 실천하자.

분리배출의 함정을 피하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면 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분리배출의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비닐’이라고 불리는 비닐봉투는 분리배출 대상일 것 같지만,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또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이다. 종지로 보여 일반 종이류로 배출해도 될 것 같지만, 올바른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종이류와 구분해 따로 배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깨끗한 알루미늄 포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많은 사람이 일반 쓰레기로 알지만, 이물질이 묻지 않은 알루미늄 포일은 금속류로 분리배출해도 된다. 여기서 우리는 분리배출의 핵심이 ‘깨끗함’과 ‘분류의 정확성’임을 알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최근에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루기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포장재와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생산되고 있는 무라벨 생수병은 라벨을 없애 소비자가 쉽게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제품 포장 시 흔하게 사용했던 일명 ‘뽁뽁이’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

정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생산 단계를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진정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가 찾아올 수 있다. 생산자, 유통·판매자, 소비자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 우리 지구를 푸르게 푸르게 지켜보자. ♻️

〈새벽종〉 읽고, 탄소중립 실천하자! 탄소중립 실천에 진심인 새마을가족 인증 사진

윤선혜



“모아두었던 페트병 뚜껑과 캔 따개를 부산남구청에 가지고 가서 종량제 봉투로 유가보상받았어요. 자원도 아끼고 보상도 받고 좋습니다.”

홍세정



“냉장고 속에서 자고 있던 재료를 활용해 만든 해산물 오일파스타입니다! 배도 부르고, 식재료도 아껴 뿌듯합니다.”

손해숙



“농촌에도 버려진 페트병이 많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해 걸어 다니면서 하나씩 줍고 라벨을 제거해 모아두었어요.”

김상현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 대신 공공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요즘에는 도시마다 공공자전거가 있어 정말 편리하네요.”



중앙회

김성호 신임 사무총장 임명

중앙회는 지난 10월 17일 제250차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의 결을 거쳐 김성호(57)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사진 왼쪽)을 제25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성호 사무총장은 강원 고성군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강원대와 미주리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재난안전관리본부 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김성호 사무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새마을운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짐바브웨 인적자원개발부 장관 내방

짐바브웨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지난 10월 25일 중앙회를 내방해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폴 부라야이 마비마(Paul Vurayayi Mavima) 짐바브웨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은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만나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제협력 사례 공유를 요청하고, 국가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짐바브웨 장관 일행은 새마을역사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살펴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자료관도 둘러봤다.



파푸아뉴기니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중앙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 10일간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파푸아뉴기니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4개의 신규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는 파푸아뉴기니는 초청 연수에 지방정부 공무원 20명을 파견했다. 중앙회는 파푸아뉴기니 시범마을 주민과 새마을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 공무원 맞춤형 교과과정을 편성했다. 사업 추진단계(1년 차)에 맞춘 환경개선 사업, 축산기술, 빗물 활용기술 등 실용적인 과목을 편성해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 추진을 도왔다.



경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중앙회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와 지역발전,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사진 오른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 활성화로 사회 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한밭대, 동아대, 카이스트, 한남대, 제주대, 단국대 등 7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2개 대학새마을동아리가 결성돼 2,60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



다문화 한마음축제 '다비빔 대축제' 성료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다문화 한마음축제인 '다비빔 대축제'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부녀회, (사)대한민국한식포럼에서 공동 주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약 1,0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서울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종 체험부스(전통의상, 전통공예품 등), 한식 체험, 탄소중립 체험,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전통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



참다래 농가, 농촌일손돕기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11월 2일 경남 고성군 하일면과 미암면 일대 토종 참다래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날 백옥자 새마을회장을 포함한 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부산시부녀회후원회 이사, 부산시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 회원, 사무직원 등 부산시 새마을가족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참다래를 수확하고 포장·출하작업도 도왔다.

대구



새마을운동실천 및 좋은이웃 만들기 우수사례

대구시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10월 24일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내믹스 B홀에서 남녀새마을지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새마을운동 실천 수범사례 및 좋은 이웃 만들기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지도자 9명에 대한 표창수여와 새마을목련회 사업후원금(1,100만 원) 전달식을 함께 가졌다.

인천



인천시의회 간담회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는 지난 10월 21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새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7명, 시 새마을회 임원 및 직원 8명 등, 총 15명이 참석해 인천시새마을회 활동현황 공유와 운영 활성화를 논의했다.

광주



도농교류 농촌봉사활동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진원)와 부녀회(회장 김용희)는 지난 10월 30일 전북 정읍시 소성면 일대 고추밭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새마을회와 전라북도새마을회의 업무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5개구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등 25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은 1,700주의 고추대를 뽑았다.

대전



좋은이웃 만들기 우수사례발표대회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10월 30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5개구 지회장을 비롯한 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공동체 대표 및 추진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 공동체는 '성공적 노화의 길잡이' 사업을 추진한 유성구 원신흥동스마일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는 동구 새마을문고 자양동분회의 '친정집 같은 마을, 그리고 이웃과 중구 용두동새마을부녀회의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새마을머리봉사대'가 선정됐다.

울산



울산 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10월 5-6일 1박 2일간 컨벤션리조트 경주에서 시회장단을 비롯한 3개 지역(울산대, 과학대, 춘해보건대) 동아리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도시 '울산' 청년새마을 워크숍'을 개최했다. 울산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회장 강희주)는 지난 10월 26-27일 경북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일대에서 동아리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세종



세종시청년연대 동행 "敬" 실천

세종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종현)는 지난 10월 19일 '동행' 회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동면 청송1리 마을 어르신 60명을 모시고 효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는 어르신들의 100세 시대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행' 회원들은 세족식, 장수기념사진, 웃음 치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새마을대학동아리(회장 송근주) '다가치' 회원들은 풍물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경기



시군 사무요원 직무교육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동안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시군지회 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2024 시군 사무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지부 직원을 포함한 31개 시군의 사무국장 및 지도과장 41명은 특강과 행정업무·운동업무에 관한 강의, 교육테스트, 모범교육생 선발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행정 실무자로서의 소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 10월 30일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과 강원도 내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열고, 지역발전의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 10월 15일 정선군 실내체육관에서 '강원도문화가족 듀엣가요제'를 개최했다.

충북



대세동 농촌봉사활동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북 진천군 양촌마을 등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내 7개 동아리 회원과 김영식 청주대 지도교수 등 70명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염색봉사와 고구마농가 일손돕기, 친환경 삼푸마 만들기, 동아리 회원 간 상호교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충남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 농촌봉사활동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인희열)는 지난 10월 10일 예산군 봉산면 청년나눔농장에서 시도·시군구회장단을 비롯한 넘서대새마을동아리(회장 홍수민) 회원 20여 명과 함께 가을밤과 사과를 수확하고, 보니밤 및 밤 송편 만들기 체험을 했다. 직장·공장협의회(회장 이현주)는 지난 10월 23일 도새마을회관에서 15개 시군 직장회장 및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전북



다가치(多價値), 다정(多情)동행

전북 부녀회후원회(백일홍희)는 지난 10월 16일 완주삼례문화예술촌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새마을목련회를 초청해 제17차 교류행사를 가졌다. 문고 전라북도지부(회장 나순희)는 지난 9월 26일 문고 회원 및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 향수의 정지용 문학관이 있는 충북 옥천'으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다녀왔다.

전남



한마음 어울마당 및 농촌봉사활동

전라남도부녀회(회장 최경옥)는 지난 11월 7일 종합스포츠타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김정임 중앙부녀회장, 전남 22개 시군 새마을부녀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직장·공장협의회(회장 오인규)는 지난 11월 2일 곡성군 목사동면 농가에서 대봉 수확 및 농가 주변 정리 정돈 활동을 펼쳤다.

경북



도민정신함양교육 및 새마을여인봉사상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동안 문경STX리조트에서 2024 도민정신함양교육을 펼쳤다. 이날 MZ세대들의 새마을동참을 위한 경일대학교새마을동아리 협약식,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경북정신과 새마을운동' 특강 등이 진행됐다. 부녀회(회장 도영순)는 지난 10월 8일 도청 동관관에서 제21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및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경남



청소년 독서퀴즈 경진대회

문고 경상남도지부(회장 조소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남해군, 창녕군, 밀양시 3개소 초등학교 및 중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퀴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새마을회 주최, 문고 경상남도지부 주관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탄소중립 관련 주제의 도서를 읽으면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넓고 깊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담은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기후위기대응 나무심기 운동

제주도협의회(회장 변봉남)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했다.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은 지난 10월 16일과 26일에 각각 제주도 43평화공원에 제주동백나무·느티나무 100여 그루, 표선면 하천리에 왕벚나무 150그루를 심고 숲 쉬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북5도



탈북민과 가족결연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10월 8일 이북5도청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식 및 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성원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북5도새마을회도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늘 북한이탈주민과 새마을 임원 3쌍이 가족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종로구부녀회(회장 심재녀)는 지난 9월 10일 회관에서 송편, 전 등 일반찬 5가지를 만들어 장애인복지관 및 관내 17개동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다.



-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부녀회(회장 이인영)는 지난 10월 18일 동주민센터에서 '희망 나눔 바자회'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먹을거리장터를 운영했다.



- 서울 성북구부녀회(회장 최필금)는 지난 9월 10일 성북예향제에서 다문화가족 40여 명과 송편을 만들어 아동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100여 가구에 일반찬과 함께 전달했다.



- 서울 은평구 녹번동부녀회(회장 김현이)는 지난 9월 3일 주민센터에서 송편, 김 등 식료품이 담긴 음식 꾸러미를 준비해 관내 홀몸 어

르신 50여 명에게 전달했다.

- 서울 동대문구부녀회(회장 김은주)는 지난 9월 12일 휘경1동주민센터에서 송편, 전 3종, 물김치를 만들어 소외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 서울 마포구 성산2동부녀회(회장 이봉재)는 지난 9월 11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만든 송편을 관내 소외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부녀회(회장 이경형)는 지난 9월 4일 주민센터에서 장조림, 김치 등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 40여 명에게 전달했다.



- 인천 중구 신포동협의회(회장 김관섭)와 부녀회(회장 송미숙)는 지난 9월 23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의 노후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협의회(회장 윤만수)와 부녀회(회장 이순덕)는 지난 9월 29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거와 노후 벽지 및 장판을 교체했다.

- 인천 남동구부녀회(회장 임양숙)는 지난 10월 7일 새마을화관에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전개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350여 가구에 전달했다.



- 인천 서구 검단동부녀회(회장 문광숙)는 지난 10월 21일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 인천 옹진군 덕적면부녀회(회장 김금미)는 지난 9월 23일 면사무소에 '제8회 주섬주섬 음악회' 먹을거리장터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춘천시부녀회(회장 이순분)는 지난 10월 7일 소양강, 남이섬 인근으로 관내 어르신 30여 명을 모시고 '희망노(老)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 강원 원주시 명륜2동부녀회(회장 홍부숙)는 지난 9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일반찬을 관내 저소득 10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부녀회(회장 최재준)는 지난 9월 11일 복지화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35여 명에게 송편, 김 등을 전달했다.
- 강원 평창군 대화면협의회(회장 권명식)와 부녀회(회장 마명희)는 지난 10월 14일 '홀몸 어르신 사랑잇기,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 3명을 모시고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 강원 철원군부녀회(회장 이애숙)는 지난 10월 23일 갈말읍사무소에서 다문화가정 주민 30여 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강원 인제군 북면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10월 22일 원통체육관 식당에서 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홀몸 어르신 75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부녀회(회장 한남례)는 지난 10월 19일 관내 당산역 근처에서 대청소 활동을 전개했다.
-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안문환)는 지난 10월 18일 각 동협의회장단과 함께 능동정자마당 인근에서 쓰레기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한만일)는 지난 10월 10일 장수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미꾸라지 방류, 하천변 쓰레기 줍기활동을 펼쳤다.
- 인천 가좌2동부녀회(회장 조명지)는 지난 11월 15일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온기나눔! 클린업데이 줍기활동'을 전개했다.



- 강원 춘천시새마을회(회장 최중복)는 지난 9월 7일 풍물시장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쓰레기 5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 강원 평창군새마을회(회장 김강석)는 지난 10월 17일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사업을 전개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 재활용 가능한 숨은 자원을 분리 및 수거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마포구부녀회(회장 어숙희)는 지난 9월 6일 아현시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에게 장바구니 500개를 배포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서구 초장동부녀회(회장 전애순)는 지난 9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31가구에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부산 북구 화명2동부녀회(회장 황일심)는 지난 10월 22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 명에게 비빔밥과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비빔밥 나눔' 사업을 펼쳤다.



- 부산 수영구새마을회(회장 박해윤)는 지난 10월 16일 이동식 빨래 세탁 차량을 운영해 관내 어르신들의 이불 20채를 세탁했다.



- 대구 서구 원대동협의회(회장 김성대)와 부녀회(회장 권해진)는 지난 10월 21일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 300여 명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대구 달서구 용산1동협의회(회장 조남제)와 부녀회(회장 장경화)는 지난 11월 2일 관내 감 농가를 찾아가 수확과 작업장 청소를 돕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 대구 달서구 용산2동협의회(회장 홍인호)와 부녀회(회장 조민정)는 지난 9월 27일 삼계탕을 준비해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 대구 달성군 가창면협의회(회장 공병국)와 부녀회(회장 김금순)는 지난 10월 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밀반찬을 만들어 9개의 읍면 취약계층 54가구에 전달했다.



- 울산 중구 우정동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10월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천연 수제 삼푸 60개를 기탁했다.
- 울산 남구 신정3동협의회(회장 이상철)와 부녀회(회장 변명숙)는 지난 10월 23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도배·장판, 조명 등을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했다.
- 울산 울주군 서생면협의회(회장 김영덕)와 부녀회(회장 정숙희)는 지난 9월 23일 휴

경지에서 재배한 감자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라면 120상자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 사동부녀회(회장 한영미)는 지난 10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을 전개해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김치 2kg씩 전달했다.



- 경기 시흥시 신천동협의회(회장 이종복)와 부녀회(회장 최인이)는 지난 10월 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소외계층 40가구에 '가을맛이 프라이팬 지원' 사업을 펼쳤다.

- 경기 포천시 영중면협의회(회장 안홍선)와 부녀회(회장 김재열)는 지난 9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송편과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양평군 용문면협의회(회장 이건구)와 부녀회(회장 윤영이)는 지난 10월 5일 용문역 앞 광장에서 소외계층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장터를 운영했다.



부산·대구·울산·경기·세종·제주·이북5도

-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김광)와 부녀회(회장 김지숙)는 지난 9월 11일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을 전개하고 도움이 손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쌀 130포대를 전달했다.
- 경기 연천군 군남면부녀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0월 17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가구의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 세종 연서면협의회(회장 류재웅)와 부녀회(회장 윤춘애)는 지난 9월 28일 시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종시민체육대회 방문객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 제주 제주시 구좌읍부녀회(회장 오해란)는 지난 10월 22일 다목적문화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밀반찬 11종을 판매했다.



- 제주 제주시 삼양동부녀회(회장 강영순)는 지난 10월 21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15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영도구 영선2동협의회(회장 이기수)와 부녀회(회장 김은경)는 지난 9월 11일 영선대로변과 현어울문화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도시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했다.



- 부산 금정구새마을회(회장 박성홍)는 지난 9월 27일 서명초등학교 학생자치실에서 환경동아리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 대구 동구 효목1동협의회(회장 이장희)와 부녀회(회장 이상란)는 지난 10월 15일 관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줌깅데이를 실시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오의수)와 부녀회(회장 전순애)는 지난 9월 11일 생명운동친환경 교실을 운영해 EM(유용미생물군)효소를 이용한 천연치약을 만들었다.
- 울산 북구 농소3동협의회(회장 문기택)와 부녀회(회장 이복란)는 지난 9월 27일 행정복지

센터 인근 새마을동산에 가을꽃 1,000개를 심었다.

- 울산 동구 남목1동협의회(회장 윤재필)와 부녀회(회장 김성남)는 지난 10월 15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싘시공원에 배롱나무 20그루를 심었다.



- 경기 이천시 설성면협의회(회장 서태석)와 부녀회(회장 조영자)는 지난 9월 6일 관내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 과천시 중앙동부녀회(회장 박정희)는 지난 10월 4일 관문로를 중심으로 가로변, 단독주택 주차장, 학교 주변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 세종 장군면협의회(회장 이진웅)와 부녀회(회장 고미자)는 지난 9월 9일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대교3리 일대를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 제주시협의회(회장 변봉남)와 서귀포시협의회(회장 박두홍)는 지난 10월 16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해 표선면 하천리에 왕벚나무 150그루를 심었다.

공동체 문화 조성

•대전 동구 가양2동부녀회(회장 박미예)는 지난 10월 2일 행정복지센터와 씬지공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8가구의 이불을 세탁했다.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부녀회(회장 김영미)는 지난 9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관내 어르신 50가구에 전달했다.



•대전 유성구부녀회(회장 김명선)는 지난 10월 8일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소외된 이웃 250가구에 고추장을 전달했다.



•광주 북구새마을회(회장 이문영)는 지난 9월 4일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체험'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차례 지내는 방법을 전수했다.

•충북 청주시부녀회(회장 박홍정)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전개해 43개 읍면동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220가구에 고추장을 전달했다.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장승일)와 부녀회(회장 김용자)는 지난 10월 22일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제천시에 기탁했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협의회(회장 최경섭)와 부녀회(회장 이선미)는 지난 9월 11일 지역 축제 행사로 모은 수익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관내 경로당 23개소와 마을회관 18개소에 전달했다.



•충북 음성군부녀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10월 12일 새마을회관에서 '우리의 소원 통일송편 빚기' 사업을 전개해 새터민과 사할린 이웃 등 200여 가구에 송편을 전달했다.

•직장·공장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오동일)는 지난 10월 10일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펼치고 관내 취약계층 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협의회(회장 박천수)와 부녀회(회장 송기은)는 지난 10월 7일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말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여 가구에 전달했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협의회(회장 김근식)와 부녀회(회장 박옥순)는 지난 9월 10일 관내 노인정 35곳에 김 70상자를 전했다.

•충남 논산시부녀회(회장 윤화중)는 지난 9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만든 말반찬을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45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충남 계룡시부녀회(회장 이정미)는 지난 9월 11일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관내 산모 9명에게 전달했다.

•경북 김천시 개령면협의회(회장 나재효)와 부녀회(회장 방규림)는 지난 9월 5일 사랑의 송편 나눔 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 송편을 전달했다.
•경북 안동시 중구동부녀회(회장 권순조)는 지난 10월 24일 관내 경로당 10곳에서 어르신을 위한 '한끼 밥상' 사업을 실시하고, 어르신 3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부녀회(회장 이태자)는 지난 10월 23일 사정동에 있는 보은의 집에서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김동환)와 부녀회(회장 권낙향)는 지난 9월 12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쌀 60포대(10kg)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협의회(회장 제종하)와 부녀회(회장 최선희)는 지난 10월 21일 행복한 보금자리 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취약 계층 1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탄소중립 실천



•대전 동구 삼성동부녀회(회장 문정미)는 지난 10월 30일 탄소중립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사업을 전개하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200kg를 수거했다.



•대전 중구 중촌동부녀회(회장 이혜숙)는 지난 10월 21일 자원재활용운동 사업을 실시하고 한 달 동안 모은 투명페트병을 업사이클링 업체에 전달했다.



•광주 남구 주월1동부녀회(회장 박현숙)는 지난 9월 9일 푸른길 공원 주변 일대를 순회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협의회(회장 이정석)와 부녀회(회장 김영미)는 지난 9월 13일 아람

답고 살기좋은 대소면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대소IC 주변 새마을동산에 국화꽃 50여 개를 심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협의회(회장 강대석)와 부녀회(회장 백정희)는 지난 9월 30일 관내에 버려진 빈 병, 플라스틱, 종이류, 비닐 등을 수거해 분리하는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을 전개했다.

•충남 청양군부녀회(회장 성수현)는 지난 10월 2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2,300kg를 수거했다.



•경북 의성군 사곡면협의회(회장 류재진)와 부녀회(회장 김수하)는 지난 10월 21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흥지에 국화꽃 120여 개를 심었다.

•경북 성주군새마을회(회장 노기철)는 지난 10월 11일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공병, 영양제 병을 수거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협의회(회장 이종석)와 부녀회(회장 금옥희)는 지난 10월 15일 관내 분홍소풍길 및 국과수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군산시새마을회(회장 심영배)는 지난 10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을 실시했다.
- 전북 정읍시 북면부녀회(회장 이만희)는 지난 9월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밀반찬을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전달했다.
- 전북 완주군새마을회(회장 구생희)는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 전북 장수군새마을회(회장 빈중옥)는 지난 9월 11일 송편과 밀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전달했다.



- 전북 임실군 관촌면부녀회(회장 이금자)는 지난 9월 26일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등 소외된 이웃 100가구를 방문해 직접 담근 고추장을 전했다.
- 전북 순창군새마을회(회장 권오준)는 지난 9월 3일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150인분의 부침개를 만들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북 부안군 상서면부녀회(회장 정옥기)는 지난 10월 16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 전남 목포시 하당동협의회(회장 강원)는 지난 10월 20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가구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창문과 창문을 교체하는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남원시새마을회(회장 배종선)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펼치고 23개 읍면동의 소외이웃 80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이동근)는 지난 10월 17일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 직장공장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서정원)는 지난 10월 3일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및 전기배선을 설치하는 보금자리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화순군 한천면부녀회(회장 윤종순)는 지난 10월 23일 복지회관에서 만든 배추김치 50여 통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 전남 해남군 현산면협의회(회장 박만수)와 부녀회(회장 김성은)는 지난 10월 15일 현산중학교에서 지역 청소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완도군 완도읍부녀회(회장 문선례)는 지난 10월 21일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60가구에 전달했다.
- 경남 통영시새마을회(회장 조승우)와 경상국립대학교새마을동아리(회장 강지선)는 지난 10월 20일 광도면 참다래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을 실시했다.



- 경남 사천시부녀회(회장 이향선)는 지난 10월 23일 고추장 나누기 사업을 전개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고추장 600통을 전달했다.
- 경남 김해시 북부동협의회(회장 김용일)와 부녀회(회장 김영란)는 지난 10월 7일 사랑의 고구마 수확 사업을 실시하고 수확한 고구마 50상자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전북·전남·경남

- 경남 의령군새마을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9월 10일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쌀 302포대를 어려운 이웃 300여 가구와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정읍시 입암면부녀회(회장 남정숙)는 지난 9월 11일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도로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했다.



- 전북 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는 지난 10월 17일 성수면 일대에서 농경지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3NO청결운동을 펼쳤다.
- 전북 부안군 줄포면협의회(회장 장두옥)와 부녀회(회장 임순님)는 지난 10월 7일 바닷가 모래사장, 소나무 숲 야영장, 공영 주차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이기전)와 부녀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0월 4일 탄소중립 실

천의 일환으로 수집한 아이스팩 2,000개를 소독해 중앙동 선어시장, 교동시장 상인회에 전달했다.



- 전남 광양시 옥곡면부녀회(회장 오경숙)는 지난 9월 7일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철쭉공원에서 잡초를 제거했다.



- 전남 화순군 이서면부녀회(회장 신경숙)는 지난 10월 15일 관내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잡초를 제거했다.
- 경남 진주시 신안동협의회(회장 조도희)와 부녀회(회장 정재숙)는 지난 10월 24일 신안북지공원에서 줍깅데이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 경남 통영시새마을회(회장 조승우)는 지난 10월 4일 가오치선착장에서 마상촌마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이동하며 연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 10톤을 수거했다.



- 경남 사천시새마을회(회장 이경덕)는 지난 9월 3일 우리 마을 꽃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봉천, 곤양천 독방길에 난타나꽃 100개를 심었다.



- 경남 창녕군 도천면부녀회(회장 안숙이)는 지난 11월 3일 도천초등학교에서 열린 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행사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9+10월호 독자 의견



박민우

'새벽종 소리' 코너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실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와 그래프로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이걸 보고 새마을정신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김성철

새마을 타임즈를 통해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다시금 조명하고 그 시절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과정을 알 수 있어서 매번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의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오성철 지도자의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류희석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자랑스러운 이웃, 경기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의 활동 이야기를 보니 미소가 절로 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새마을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박순화

'심포 여행' 코너에서 '역사와 자연이 빛어낸 도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읽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논개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UDT처럼 용감했던 여인의 기개에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주시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 스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